

서울대·연세대 등록포기 줄었지만… “대기업보다 의대”

서울대 최초합격 107명 포기
연대 시스템반도체 84% 이탈
“이공계 인력수급 정책 보완을”

서울대와 연세대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대기업 계약학과보다 의대를 택하는 흐름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의 2026학년도 정시 1차 추가합격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 중 10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 124명보다 17명(13.7%) 감소한 수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86명, 인문계열 17명, 예체능 4명이다.

자연계열 등록포기 인원은 86명으로 전년 95명보다 9명(9.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의대 중복합격 인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 76명보다는



대기업 계약학과보다 의대를 택하는 흐름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토이미지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서울대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의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인원은 ▲2022학년도 66명 ▲2023학년도 88명 ▲2024학년도 76명 ▲2025학년도 95명 ▲2026학년도 86명으로, 의대 정원 확대 시기인 2025학년도에 급증한 뒤 소폭 감소했지만 증원

이전 수준으로는 회귀하지 않았다.

학과별로는 ▲전기정보공학부 10명 ▲신림과학부 8명 ▲간호대학 6명 ▲첨단융합학부 5명 ▲건축학과 4명 등 27개 학과에서 86명의 등록포기가 발생했다. 반면 서울대 의예과는 등록포기 인원이 0명으로, 지난해 1명에서 더 줄어 의대 선호의 상징적 지표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등록포기는 ▲경영대학 5명

▲경제학부 2명 ▲인문계열 2명 ▲학부대학 2명 등 10개 학과에서 17명 발생했다. 전년 27명보다 10명(37.0%) 감소한 수치다.

연세대는 정시 최초합격자 중 435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446명보다 11명(2.5%) 감소했다. ▲자연계열 254명(모집정원 대비 32.4%) ▲인문계열 176명(24.2%) ▲예체능 5명(2.9%)이다.

그러나 대기업 계약학과에서의 이탈은 오히려 확대됐다. 연세대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32명 합격생 중 27명, 84.4%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25명 중 17명(68.0%)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연세대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도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28.6%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세대 의예과는 18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12명보다 6명 증가했다. 상당수는 서울대 의대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으로 추정된다. 자연계열에서는 ▲전기전

자공학부 48명 ▲첨단컴퓨팅학부 26명 ▲진리자유학부 22명 등 27개 학과에서 254명의 이탈이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등록포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뿐, 의대 선호 현상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특히 의대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에 동시에 합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 의대를 선택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이 줄었음에도 서울대·계약학과 대비 의대 우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학대 논의 까지 맞물릴 경우 의대 졸림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기업 계약학과의 인재 확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공계 인력 수급 구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지역 학교에 탄소중립 자가진단 도입

서울시교육청, 실천 수준 지속 점검
중점학교 44교 지정하고 집중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6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하고, 중점학교 44교를 지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시행해 온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진단-계획-실천-환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새롭게 도입한다. 모

든 학교는 이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우리학교 실천 과제’를 선정, 연중 실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함께 실천 안내서를 모든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 44교를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중점학교에는 실제 에너지 사용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제공되고, 전담 연구원이 매달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탄소 감축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 시설관리본부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냉난방기 관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된다. 학교 내 냉난방기 사용 현황을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피크전력 및 대기전력 관리 ▲불필요한 냉난방기 사용 최소화 등을 추진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5년 ‘탄소제로 실천 중점 학교’ 33교 운영 결과, 2024년 대비 약 68.189kgCO₂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학교의 실제 탄소 배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실천·컨설팅이 현장의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추진을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이 행사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2050 서울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

13~18일까지 시외버스 증차 등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한 설 귀성길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증차, 도로정보 실시간 안내, 긴급도로 복구 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

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대설 발생시 대응대책 추진 등 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4개 권역에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2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막차 1시간 연장 운행등, ‘의정부 경전철,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2월 17일

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1시 까지 심야 연장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 36대를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경부·영동 등 5개 주요 고속도로는 정체 발생 시 지방도 311호선 등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9개 국도에 대해서는 지방도 309호선 등 주변 14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일본의 중의원(하원) 선거 8일 투표 시작… 465석에 1200여명 출마
▲이란, 오만회담 후 미국과 외교관계 재개 예상.. 핵·미사일 규제는 일축

▲1200억 벌었는데 ‘동정 없다’… 중국도 돌아선 구아이링
▲‘기자 300명 해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대표 사임

▲“트럼프 평화위, 오는 19일 워싱턴서 정상회의”
▲중국군 “남중국해 닷새간 정례 순찰… 역외 개입이 평화 훼손”

종합 점수 94.46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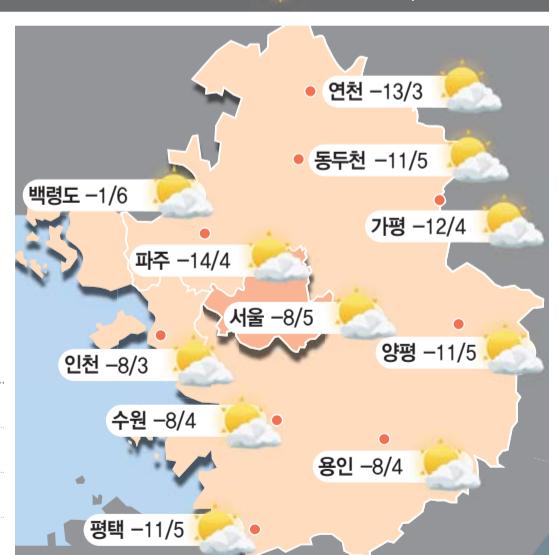
리집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상담 제공 등 체계적인 민원행정 운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러한 노력은 ‘민원 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분야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며,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뜰 / 07:29 | 해짐 / 18:04



메트로 한줄뉴스